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년 8월

석사학위논문

#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개발

— 간호학생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조 영 희

#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개발

-간호학생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a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

: Focused on Nursing Students

2010년 5월

조선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조영희

#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개발

- 간호학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권 영 란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조선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조영희

# 조영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공병혜                  인

위원                  강희영                  인

위원                  권영란                  인

2010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ABSTRACT .....	iv
I.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3
C. 용어 정의 .....	4
II. 문현고찰 .....	5
A.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
B. 정신간호사 .....	6
III. 연구방법 .....	8
A. 연구설계 .....	8
B. 연구대상 .....	8
C. 자료수집 .....	8
D. 연구절차 .....	9
1. 문현고찰을 통한 문항 추출 .....	9
2. 예비검사를 통한 설문문항의 구성 .....	11
3.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도구의 확정 .....	12
4.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	12
E. 분석방법 .....	13

<b>IV. 연구결과</b>	<b>14</b>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전공 관련 특성	14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
2. 대상자의 전공 관련 특성	16
B.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도구의 확정	18
1. 문형분석 및 요인분석	18
2. 요인 추출 및 요인회전	18
3. 요인명명	22
4. 요인별 독립성 검증	22
C.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23
1. 측정방정식의 모형분석	23
2. 측정방정식의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	25
D.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27
<b>V. 논의</b>	<b>28</b>
<b>VI. 결론 및 제언</b>	<b>34</b>
<b>참고문헌</b>	<b>36</b>
<b>부록</b>	<b>42</b>

## 표 목 차

표 1. 예비측정도구 구성	10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
표 3. 대상자의 전공 관련 특성	17
표 4. KMO와 Bartlett 검정 결과	18
표 5. 전체문항의 공통성	20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회전 후 요인행렬	21
표 7. 하부요인간의 상관관계	23
표 8. 측정방정식의 모형분석	24
표 9. 측정방정신 모형의 수렴타당성 평가 결과	26
표 10. 요인 간 상관행렬과 분산추출지수	27
표 11. 측정도구 전체 및 요인별 신뢰도	27

## 그림 목 차

그림 1. 스크리도표	19
-------------	----

## 부 록 목 차

부록 1. 도구의 타당도 조사 설문지	42
부록 2. 설문지	45

# ABSTRACT

## Development of a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

– Focused on Nursing Students –

Cho, Young Hee

Advisor : Prof. Kweon, Young-Ran Ph.D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 for evaluation on image of psychiatric nurses in Korean nursing students and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Methods:** A methodological study design with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and a fitness of the modified mode for validity. Also, Cronbach's alpha coefficient for reliability was us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426 nursing students, residing in Gwangju and Jeollanamdo.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period from Nov. 10 to Dec. 23, 2009. In developing this instrument, the researcher first established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the respondents through a self-reporting method and each item had a possible score of 5.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15.0 and LISREL 8.54 program.

**Results:** The 26 items making up the instrument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4 factors: 'Professionalism', 'Communication competence', 'Activism', 'Coordination competence'. These factors explained 65.8% of the

total variance. The fitness of the modified mode was good ( $\chi^2= 1052.30$ , RMSEA=.05, GFI=.90, AGFI=.86, NFI=.97, and CFI=.98). The reliability of the PSYNIS was .96 (Cronbach's alpha). **Conclusion:** The results of present study suggest that the **PSYNIS** may be useful for efficiently evaluation on image of psychiatric nurses in Korean nursing students.

*Key word: Psychiatric nurses, image, nursing students, validity, reliability*

# I. 서 론

## A.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에 들어 사회는 점점 더 정보화, 세분화, 전문화 되어 가고 있으며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현대인들의 잠재적인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당연시 하게 되었으며(최혜숙, 김분한, 2004), 특히 정신건강서비스의 전문화를 통한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정신간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3).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통하여 정신건강영역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에 치중되어 오던 정신건강 영역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전환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신보건영역의 핵심 인력인 정신간호사의 역할변화가 요구되었다. 실제 1997년 정신보건법이 시행됨으로써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그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 전문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교육과 배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어가고 있다(정신보건법 시행령, 2010개정).

정신간호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정신간호사라고 볼 수 있다 (Burnard & Fothergill, 2000). 정신간호사는 자신을 치료적인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환자의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을 다루고, 또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통한 중재가 간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간호사로서의 자기 자신과 역할에 대한 이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Happell, Martin, & Pinikahana, 2003). 따라서 정신간호사에게는 자신의 역할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요구된다(Kenny, McConnachie, Petrie, & Farrell, 2009).

그러나 전통적으로 간호영역 중에서 정신간호영역은 독자적이지 못하고,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Brown et al., 2000). 이는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와 더불어 정신간호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으며(McCabe, 2006),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감소시켜 소진과 이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Edwards et al., 2006; Hannigan et al., 2000). 나아가 이러한 정신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인력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으며(Halter, 2008), 특히 졸업 반 간호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Happel, 2002).

간호학생들이 정신간호사의 역할에 적합한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정신적인 개념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지가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준거체제가 되기 때문이다(Strasen, 1990). 이런 측면에서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자신이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호학생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미래에 자신이 갖게 될 직업에 관련된 태도와 이미지는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써, 개인이 지각하는 이미지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또한 장차 직업 수행 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Hughes, 2000; 오덕자, 최철자, 권보은, 박연환, 2005; 최혜숙, 김분한, 2004). 이처럼 간호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향후 진로선택과 실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전문직에 대해 갖는 바람직한 이미지는 전문직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Donley, 1985; 송인자, 1993)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조사(김민정, 2000; 양진주, 2003; 이순희, 김정아, 2006; 이영란, 2008; 최정, 하나선, 2009; 최형욱, 정면숙, 2007; 최혜숙, 2005; Beatrice et al., 2007; Kalisch & Kalisch, 2005; Milsen et al., 2010; Miyuki & Elizabeth, 2006; Siebens et al., 2006; Susanne, 2007; Tsang, 2005)는 많이 되어왔으나,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13개 영역의 전문분야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정신간호사 이미지 파악을 위한

도구개발을 통하여, 향후 전문적이고 긍정적인 정신 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실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를 제작하여, 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봄으로써 검증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간호사 이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근거하여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다.

## C. 용어정의

### 1. 정신간호사

정신간호사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정신전문 간호사와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을 갖춘 자 뿐만 아니라, 정신과 병동과 지역 정신보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간호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문요원중의 정신보건 간호사에 한하여 자격에 대해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업무의 범위 및 한계가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포함되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정신전문 간호사나 정신간호사에 대한 정의나 업무의 영역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도복ぬ 외, 2007).

### 2. 이미지

이미지란 일반적으로 유사성, 마음속의 그림, 가시화 된 사람·동물·사물에 대한 표현이나 상징 혹은 대표성이며(Mendez & Louis, 1991), 감각기관에 대한 자극작용 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映像)이다(두산 백과사전).

### 3. 정신간호사 이미지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사이미지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정신과 병동과 지역 정신보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모두 포함한 정신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종합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II. 문현고찰

### A.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미지란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종합이다 (Kotler & Clarke, 1987). 이러한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듣거나 교육과정을 거쳐 형성하게 되는데 특정대상에 대해서 정형화된 이미지를 갖게 되기 전일수록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이돈순, 1995).

여러 연구문헌들에서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중들은 간호사의 이미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형성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주로 병원에서 직접 접촉하거나 주변의 간호사들을 통하여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고 대중매체의 영향은 적게 받는다고 보고되었다(강영실, 2001; 김형자, 김현옥, 2001; Andrew, 1981). 이와는 대조적으로 허금희와 이병숙(1999)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에서는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따라서 대중매체에서 표현되고 있는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간호학생들이 교육과 임상실습을 통하여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연구결과(강현숙, 김원옥, 2002; Sureyya, 2003)도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임상실습이 간호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미영, 김순이, 2000; 박미화, 양진주, 2003; 양진주, 2002). 또한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중매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양일심, 1998; Kippman & Ponton, 1989)도 있으나, 이와 반대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김정아, 이순희, 2003, 2006; Beatrice et al., 2007).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간호사 이미지 형성의 영향요인들 중 특히 간호

학생이 경험하는 임상실습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간호학생들이 실습기간 동안 접촉하게 되는 임상간호사들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신간호사는 평소 접촉가능성이 낮고, 대부분 짧은 기간의 정신간호학실습을 통해서만 접하게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습 시에 접촉하게 되는 정신간호사가 이미지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B. 정신간호사

최근 정신보건 분야의 흐름은 정신과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신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과거의 폐쇄된 공간에서 벗어나 개방된 시설에서의 치료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간호사의 활동영역도 한정된 병원에서 지역사회로까지 확대되면서 역할과 업무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양수, 김필교, 2000; 이경희, 박정자, 1994).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97년에 최초로 배출되기 시작 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가 2007년에는 7,8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정신보건간호사는 5,004명(보건복지백서, 2007)으로 보건 전문요원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간호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역할의 중요성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Edwards et al., 2000).

그러나 정신간호 분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Halter (2002)는 정신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반대중은 물론이고 간호학생과 타 의료분야 근무자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Happel(2002)의 호주 학생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졸업 후 근무하고 싶은 9개분야중에서 정신간호 분야는 8위로 매우 낮은 순위로 선택되었다. 최근의 Margaret(2008)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임상간호사들은 10개의 전문분야 중에서 정신과 근무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도 간호사들이 정신과 근무를 기피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뿐만 아니라,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조차도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근무분야로 정신과를 꼽았다. 많은 간호사들은

정신과 근무에 대해 숙련되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며 지루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험성, 무능함 등의 고정관념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Corrigan(2004)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이렇듯 시대적으로는 정신간호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까지 간호학생이나 임상간호사들로부터 기피되고 있는 정신간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수의 우수한 정신간호사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Durkin(2002)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이 정신간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학생시절 정신간호학 실습 과정 중의 폭넓은 경험과 롤 모델(role model)의 영향을 제시하였는데, 이처럼 정신간호학에 대한 긍정적인 실습경험은 간호사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정신간호 분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Martin & Happell, 2001). 따라서 간호사들과 간호학생들의 정신과 근무와 정신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 **III. 연구 방법**

####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 **B.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K시와 J도 소재 3년제 간호대학 2개교와 4년제 간호학과 2개교의 재학생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수락한 자를 대상으로 480명을 선정하였다. 표집방법은 임의표집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수는 표본 크기를 구하기 위하여 G\*Power 3.0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Goodness-of-fit tests에서 유의수준( $\alpha$ )=.05, effect size(w)=.50, 검정력(1- $\beta$ )=.80, Df=293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263명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추정모수치가 56개 이내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표본의 크기가 추정모수치의 5~10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최소 280명에서 최대 560명을 선정하여야 통계적 검증력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다.

#### **C.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12월 23일까지였으며, 대상학교의 정신 간호학 담당교수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와 협조를 받았으며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비밀보장을 설명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기보고 형식으로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 480부를 배부하여 450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답변 누락문항이 많은 질문지 23부를 제외한 426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D.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관련 선행 연구결과의 고찰을 통해 설문지에 포함할 문항을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한 문항에 대한 예비검사를 통해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수집한 자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요인과 문항을 확정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문현고찰을 통한 문항 추출

국내외 문현들 중 간호사 이미지와 정신간호사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과 각 요인의 세부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문항을 검토하고 일부는 수정하였다. 원래의 도구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문항을 추출하여,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다. 예비 측정도구에는 업무적 특성(activism)을 묻는 하위문항 6개, 의사소통적 특성(communicative competence)을 묻는 하위문항 7개, 개인적 특성(personalism)을 묻는 하위문항 6개, 전문적 특성(professionalism)을 묻는 하위문항 7개, 조직적 특성(coordination competence)을 묻는 하위문항 5개가 포함되어 총31개 문항의 도구가 완성되었다<표1>.

<표 1> 예비 측정도구 구성

요인명	예비 측정도구의 하위항목	선행연구
업무적 특성	1. 환자의 개인위생 및 안전관리를 한다. 2.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독자적인 간호를 수행한다. 3. 각종 검사(심리검사 포함)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4. 증상 및 약물관리를 한다. 5. 근거중심의 간호기록을 작성한다. 6. 임상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잘 다룬다. 7. 환자와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8. 가족과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9. 환자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10. 가족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11. 보건의료팀과 정보를 교환한다. 12.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한다. 13.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 14.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 15.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있다. 16.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17. 밝고 따뜻하다. 18. 창의적이다. 19.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20.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21.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22. 정신간호사로써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다. 23. 대상자와 전문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24.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 25.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26. 실무에 과학적 방법을 활용한다. 27. 다른 의료진과 협력한다. 28. 관리자로써 자질을 가지고 있다. 29. 보건의료요원들과 팀으로써 일한다. 30.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간호업무를 조직한다. 31. 정신간호사 조직에서 활동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ristel et al.(2009)</li> <li>•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실무지침서</li> <li>• 정신건강간호학(2008)</li> <li>•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 2조 1항(2010 개정)</li> <li>• 이돈순 (1995)</li> <li>• 양일심 (1998)</li> <li>• Beatrice, J. K et al.(2007)</li> <li>• 김형자, 김현옥 (2001)</li> <li>• 최혜숙, 김분한 (2004)</li> <li>• 오덕자 외 (2005)</li> <li>• Siebens, K et al.(2006)</li> </ul>
의사소통 특성		
개인적 특성		
전문적 특성		
조직적 특성		

## 2. 예비검사를 통한 설문문항의 구성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구성된 예비 측정도구의 내용 타당도 (Content Validity)를 검증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도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앞서 작성된 총 31문항에 대한 예비검사를 간호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예비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신간호사 4명, 정신간호학 교수 3명, 정신간호학 전공 박사과정생 1명으로 총 9명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하였다. 내용 타당도를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타당하지 않음’ 2점, ‘보통임’ 3점, ‘타당함’ 4점, ‘매우 타당함’ 5점으로 예비 측정도구 평점하도록 하고,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 평점 결과가 4점, 5점인 항목으로 계산하여 문항타당도 지수 CVI가 0.8 미만인 2문항(‘14.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 ‘26. 실무에 과학적 방법을 활용한다’)은 삭제하였다. 또한 내용의 타당성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3개의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문항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명확히 밝혀주는 구체적인 문장이 아닌 추상적인 문장으로 진술된 문항들이 이에 속한다.

17. 밝고 따뜻하다

18. 창의적이다.

### 2) 중복내용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항이 있어서 문항을 삭제한 경우이다.

15.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 26문항이 선정 되었다.

### **3.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도구의 확정**

탐색적 요인분석(EFA)은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26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추출 및 회전방법은 다음의 자료분석 방법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 **4.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개발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LISREL 8.54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SPSS WIN 15.0을 통한 내적일관성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잠재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경로계수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는 이론적인 근거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한 후에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김계수, 2009).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교정해주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측정의 신뢰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과 달리, 보다 정확한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은 개별 요인들의 단일 차원성을 조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모든 요인과 변수를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측정방정식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모든 요인과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이는 추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측정방정식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김계수, 2009).

## E.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적 통계 처리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LISREL 8.54 program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과 전공 관련 특성을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KMO (Kaiser - Mayer - Olkin)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탐색적으로 변수들 간에 내재하는 구조를 파악하여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실시하였고,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확인하는 방법과 고유값(eigen value)이 1.0이상일 때 요인을 추출하는 Kaiser 방법을 같이 고려하여 요인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요인의 상관을 인정하는 사각회전 방법 중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으로 요인들을 회전시켰다. 또한 요인별 독립성 검증을 위해 4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3.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요인 구조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방정식의 모형을 분석하여 Chi-Square 통계량,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 GFI(Goodness of Fit Index; 적합지수),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조정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표준적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비교적합지수)의 값을 구하였다.

둘째,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위해 구성개념 타당성과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4.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alpha$  값을 조사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탐색하기 위해 전체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와 각 하위 척도별 Cronbach's  $\alpha$ 를 계산하였다.

## IV. 연구결과

###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전공 관련 특성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령, 성별, 학년, 학제, 종교, 성적, 입학 경로, 성격, 가족 중 간호사 유무, 입원경험, 본인 또는 가족의 정신질환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63세였다. 성별은 과 특성상 ‘여학생’이 94.6% (n=403)으로 ‘남학생’ 5.4%(n=23)보다 많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25.8%(n=110), ‘2학년’ 29.3%(n=125), ‘3학년’ 30%(n=128), ‘4학년’ 14.8%(n=63)였다. 학제에 따른 구분은 ‘3년제’가 37.8%(n=161), ‘4년제’가 62.2% (n=265)였다. 종교는 ‘기타’(무교 포함) 45.5%(n=194), ‘기독교’ 33.8%(n=114), ‘천주교’ 11.5%(n=49), ‘불교’ 9.2% (n=39)순이었다. 학과 성적은 ‘중’이라는 응답이 57.5% (n=245)로 가장 많았고, ‘상’ 25.8%(n=110), ‘하’ 16.7%(n=71) 순이었다. 입학 경로는 ‘고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한 경우’가 83.6%(n=356)로 가장 많았고 ‘재수 또는 삼수 후 입학한 경우’ 7.3%(n=31), ‘비 간호계열 졸업 후 편입학한 경우’ 6.8%(n= 29), ‘간호과 졸업 후 편입학한 경우’가 2.3%(n=10)순이었다. 자신의 성격은 ‘내향적’이라는 응답이 51.9%(n=221), ‘외향적’이라는 응답이 47.9%(n=204)였다. 가족 중에 ‘간호사가 있다’ 20.2%(n=86), ‘없다’ 79.8%(n=340)였다. 가족이나 본인의 입원경험은 ‘유’ 70%(n=298), ‘무’ 30%(n=128)였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정신질환 경험에 대해 ‘유’ 5.6%(n=24), ‘무’ 94.4%(n=202)였다.

&lt;표 2&gt;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26)

특성	구분	실수/M(SD)	백분율(%)
연령		20.63(2.02)	
성별	남	23	5.4
	여	403	94.6
학년	1학년	110	25.8
	2학년	125	29.3
교육제도	3학년	128	30.0
	4학년	63	14.8
종교	3년제	161	37.8
	4년제	265	62.2
종교	천주교	49	11.5
	기독교	114	33.8
종교	불교	39	9.2
	무교(기타)	194	45.5
성적	상	110	25.8
	중	245	57.5
성적	하	71	16.7
	고교졸업 후 바로 입학	356	83.6
입학경로	재수 또는 삼수	31	7.3
	간호과 졸업 후 편입학	10	2.3
성격	비 간호계열학과 졸업 후 편입학	29	6.8
	내향적	221	51.9
직계가족 중	외향적	204	47.9
	유	86	20.2
간호사	무	340	79.8
	유	298	70.0
입원경험	무	128	30.0
	유	24	5.6
정신질환경험	무	402	94.4

## 2. 대상자의 전공 관련 특성

대상자의 전공 관련 특성은 <표 3>과 같다. 정신간호학 수업이수와 실습경험에 대해서는 ‘정신간호학 수업 무’ 37.8%(n=161), ‘정신간호학 수업 유, 실습 유’ 35.2% (n=150), ‘정신간호학 수업 유, 실습 무’ 27%(n=115)순이었다. 간호학 전공 선택의 동기의 개인적인 측면은 ‘주위의 권유’라는 응답이 45.3%(n=193)로 가장 많았고 ‘적성·흥미’ 35.2%(n=150), ‘입시성적에 맞추어’ 19.5%(n=83)순이었다. 사회적인 측면의 간호학 전공 선택의 동기는 ‘취업용이’이라는 응답이 50.7%(n=216)로 가장 많았고, ‘직업적 안정성’ 27%(n=116), ‘사회에 기여, 봉사’ 11.3% (n=48), ‘사회적으로 인정’ 7.0%(n=30), ‘해외진출’ 2.1%(n=9)순이었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76.3%(n=325), ‘매우 만족’ 11.5%(n=49), ‘불만족’ 11.0%(n=47), ‘매우 불만족’ 0.9%(n=4), 순이었다. 졸업 후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50.9%(n=217)로 가장 많았고, ‘원한다’ 33.6%(n=143), ‘원하지 않는다’ 15.3%(n=65)순이었다. 정신과 간호사의 역할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 ‘잘 모른다’ 51.4%(n=219), ‘잘 알고 있다’ 48.4%(n=206)였다. 본인이 정신간호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적합’ 45.1%(n=192), 보다 ‘부적합’이 54.7%(n=232)로 더 많았다. 정신간호사를 전문가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는 ‘그렇다’ 86.4%(n=368), ‘그렇지 않다’ 13.6%(n=58)로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매체는 ‘책’ 40.8%(n=174), ‘TV’ 28.9%(n=123), ‘영화’ 15.5%(n=66), ‘인터넷’ 13.8%(n=59) 순이었다.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이 있는 대상자중 정신간호학 실습을 경험한 곳은 ‘정신병원’이 63.5%(n=94)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정신과’ 19.6%(n=29), ‘종합병원 정신과 & 지역정신보건센터’ 7.4%(n=11), ‘정신병원 & 지역정신보건센터’ 7.4%(n=9), ‘지역정신보건센터’ 3.4%(n=5)순이었다. 정신간호학 실습만족도는 ‘만족’ 86.4%(n=127), ‘불만족’ 13.6% (n=20)였다.

&lt;표 3&gt; 대상자의 전공 관련 특성

(N=426)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정신간호학 수업 무	161	37.8
수업, 실습 유무	정신간호학 수업유, 실습부	115	27.0
	정신간호학 수업유, 실습유 적성·흥미	150	35.2
	입시성적에 맞추어	150	35.2
전공선택 동기		83	19.5
(개인적 측면)	주위의 권유	193	45.3
	사회에 기여·봉사	48	11.3
	해외진출	9	2.1
전공선택 동기	직업적 안정성	116	27.0
(사회적 측면)	취업용이	216	50.7
	사회적 인정	30	7.0
	매우만족	49	11.5
	만족	325	76.3
전공만족도	불만족	47	11.0
	매우 불만족	4	0.9
	원한다	143	33.6
정신과 근무 희망	잘 모르겠다	217	50.9
	원하지 않는다	65	15.3
정신간호사	잘 알고 있다.	206	48.4
역할인식	잘 모른다.	219	51.4
정신간호사	적합	192	45.1
적합성	부적합	232	54.5
정신간호사	그렇다	368	86.4
전문가 인식	그렇지 않다	58	13.6
	T.V	123	28.9
정신간호사	책	174	40.8
이미지 영향 매체	인터넷	59	13.8
	영화	66	15.5
	종합병원 정신과	29	19.6
정신간호학	정신병원	94	63.5
실습 경험장소	지역정신 보건센터	5	3.4
	종합병원 정신과&지역정신보건센터	11	7.4
	정신병원 & 지역정신보건센터	9	6.1
정신간호학	만족	127	86.4
실습 만족도	불만족	20	13.6

## B.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도구의 확정

### 1.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먼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자료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표본의 상관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며 .80이상이면 양호하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요인의 상관계수가 유의확률 .05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김계수, 2009).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KMO 값이 .959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7800.472( $p<.001$ )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값은 <표 4>와 같다.

<표 4> KMO와 Bartlett 검정 결과

구분	측정치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95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유의확률
	7800.472 $p<.001$

### 2. 요인 추출 및 요인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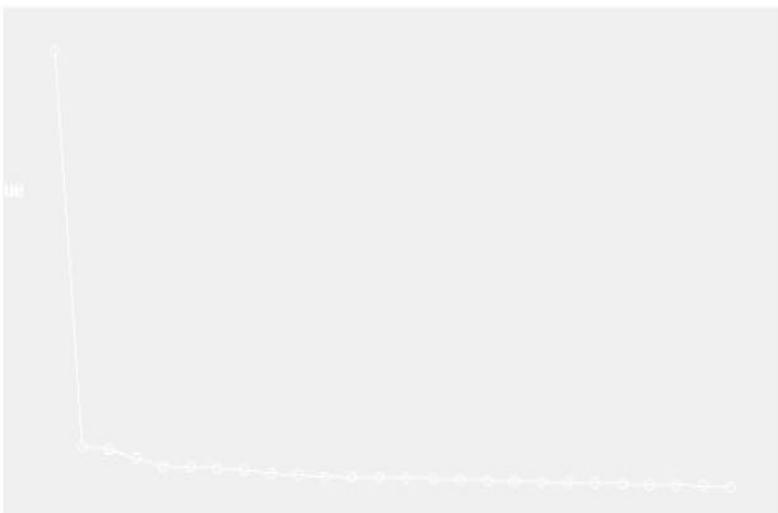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축요인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수의 결정을 위해 스크리도표를 통한 검증과 Kaiser 기준인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

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요인의 회전에 있어서는 요인 간 상관을 허용하는 직접 오블리민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첫째, 추출된 요인이 각 변수를 설명해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공통분산(Communalities)을 확인해보았을 때 .464~.821 범위안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 둘째, 스크리도표의 곡선이 완만해지기 직전까지의 요인이 4개로 확인되었으며<그림 1>, 총26문항에서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이 총 4개가 추출되었다. 이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과 요인들의 요인행렬 및 설명분산은 <표 6>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제1요인이 12문항, 제2요인이 5문항, 제3요인이 6문항, 제4요인이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분산에 대한 4개 요인의 설명력은 사회과학분야의 기준인 60%를 넘어, 총 누적변량은 65.8%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설명력은 제1요인이 51.6%, 제2요인 5.3%, 제3요인 5.0%, 제4요인은 3.9%로 분석되었다.

### <그림1> 스크리도표



<표 5> 전체문항의 공통성(Communalities)

문항내용	초기값 (Initial)	추출된 값 (Extraction)
v1. 환자의 개인위생 및 안전관리를 한다.	1.000	.557
v2.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독자적인 간호를 수행한다.	1.000	.548
v3. 각종 검사(심리검사 포함)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1.000	.643
v4. 증상 및 약물관리를 한다.	1.000	.643
v5. 근거중심의 간호기록을 작성한다.	1.000	.666
v6. 임상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잘 다룬다.	1.000	.464
v7. 환자와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1.000	.821
v8. 가족과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1.000	.782
v9. 환자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1.000	.816
v10. 가족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1.000	.764
v11. 보건의료팀과 정보를 교환한다.	1.000	.613
v12.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한다.	1.000	.658
v13.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	1.000	.643
v14.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1.000	.539
v15.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1.000	.644
v16.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1.000	.694
v17.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1.000	.792
v18. 정신간호사로써 직업에 대한 궁지를 갖고 있다.	1.000	.666
v19. 대상자와 전문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1.000	.678
v20.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	1.000	.471
v21.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1.000	.640
v22. 다른 의료진과 협력한다.	1.000	.683
v23. 관리자로써 자질을 가지고 있다.	1.000	.675
v24. 보건의료요원들과 팀으로써 일한다.	1.000	.677
v25.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간호업무를 조직한다.	1.000	.714
v26. 정신간호사 조직에서 활동한다.	1.000	.618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회전 후 요인 행렬

문항	추출된 요인			
	1	2	3	4
V17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853			
V16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822			
V18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간호업무를 조직한다.	.802			
V25 정신간호사로써 직업에 대한 궁지를 갖고 있다.	.792			
V19 대상자와 전문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789			
V15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781			
V21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778			
V26 정신간호사조직에서 활동한다.	.759			
V23 관리자로써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740			
V22 다른 의료진과 협력한다.	.717			
V14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633			
V20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	.597			
V9 환자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896			
V7 환자와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889			
V8 가족과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874			
V10 가족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858			
V11 보건의료팀과 정보를 교환한다.	.678			
V4 증상 및 약물관리를 한다.	.801			
V5 근거중심의 간호기록을 작성한다.	.795			
V3 각종검사(심리검사 포함)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778			
V1 환자의 개인위생 및 안전관리를 한다.	.723			
V2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독자적인 간호를 수행한다.	.723			
V6 임상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잘 다룬다.	.652			
V12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한다.	.758			
V13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	.746			
V24 보건의료요원들과 팀으로써 일한다.	.684			
Eigen-value	13.421	1.383	1.286	1.021
% of Variance	51.619	5.319	4.945	3.929
Commutative %	51.619	56.938	61.883	65.812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Oblimin with Kaiser Normalization.

### 3. 요인명명

본 연구에서 요인회전의 결과 제 1요인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간호업무를 조직한다’, ‘정신간호사로써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다’, ‘대상자와 전문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정신간호사조직에서 활동한다’, ‘관리자로써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의료진과 협력한다’,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의 12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첫 번째 요인을 ‘전문적 특성(professionalism)’으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에는 ‘환자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환자와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가족과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가족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의료팀과 정보를 교환한다’의 5문항이 포함되었고, 이 두 번째 요인을 ‘의사소통적 특성(communication competence)’으로 명명하였다.

제 3요인에는 ‘증상 및 약물관리를 한다’, ‘근거중심의 간호기록을 작성한다’, ‘각종검사(심리검사 포함)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환자의 개인위생 및 안전관리를 한다’,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독자적인 간호를 수행한다’, ‘임상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잘 다룬다’의 6문항이 포함되었고, 이 세 번째 요인을 ‘업무적 특성(activation)’으로 명명하였다.

제 4요인에는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한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 ‘보건의료요원들과 팀으로써 일한다’의 3문항이 포함되었고, 이 네번째 요인을 ‘조직적 특성(coordination competence)’으로 명명하였다.

### 4. 요인별 독립성 검증

요인별 독립성 검증을 위해 4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  $r=.33 \sim .59$ 의 범위로 나타났다. 4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표 7> 하부요인간의 상관관계

	요인1 r(p)	요인2 r(p)	요인3 r(p)	요인4 r(p)
요인1	1.000			
요인2	.530(<.001)	1.000		
요인3	.599(<.001)	.514(<.001)	1.000	
요인4	.429(<.001)	.333(<.001)	.346(<.001)	1.000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Oblimin with Kaiser Normalization.

## C.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음, 요인에 대한 확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요인분석은 이론적인 지식이나 결과를 가지고 가설형식으로 모형화하고 행렬의 일부원소를 제약할 수 있어 탐색적 요인분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확인요인분석은 측정항목간의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Pedhazur & Schmelkin, 1991).

### 1. 측정방정식의 모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원자료를 공분산 행렬로 변환하여 모든 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요인의 적재치를 계산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으로 변인간의 관계와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또한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 검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Chi-Square 통계량,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 GFI(Goodness of Fit Index; 적합지수),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조정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표준적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비교적합지수)를 사용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확인요인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본 연구 결과  $\chi^2$ 통계량은 1052.30( $p<.001$ ), RMSEA는 .05, GFI는 .90, AGFI는 .86,

NFI는 .97, 그리고 CFI는 .9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측정방정식 모형의 적합성 평가는 공분산 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는 절차로  $\chi^2$ 검증을 이용한 모형평가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chi^2$ 검증에서는 귀무가설을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표본수가 200개 이상으로 증가하면,  $\chi^2$ 통계량이 증가하여 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100개 이하인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다.

이러한  $\chi^2$ 검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다양한 적합도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합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간명부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 충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등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첫째,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가능한 간명한 모형을 선호하는 RMSEA의 경우, 0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80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한다. 둘째, 절대부합지수인 GFI는 주어진 모형이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회귀분석에서 다중상관치( $R^2$ )과 관련이 있으며, .90이상일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GFI를 자유도에 의해서 조정해 준 것을 의미하는 AGFI의 경우에는 .85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기초모형(측정변수사이에 공분산 또는 상관관계가 없는 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이론적인 배경하에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충분적합지수인 NFI와 CFI의 경우 .90이상일 때 적합한 모형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모든 적합지수의 값이 임계치를 초과하므로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표 8> 측정방정식의 모형분석

구분	$\chi^2(p)$	RMSEA	GFI	AGFI	NFI	CFI
기준 (임계치)	(p>.050)	Lower	$\geq .90$	$\geq .85$	$\geq .90$	$\geq .90$
측정방정식 모형	1052.30(p<.001)	.05	.90	.86	.97	.98

## 2. 측정방정식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

측정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후, 구성개념 타당성과 함께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분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측정도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적절히 측정했는가를 검증하였다. 각 문항의 표준적 재치가 .50 이상을 나타내어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분산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를 통해 수렴타당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개념신뢰도는 측정의 오차가 없다는 가정 하에 모델의 모수치를 이용하여 요인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측정의 오차간에 상관이 있는 Chronbach's  $\alpha$ 값이 척도의 신뢰도를 과소추정하거나 과대추정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dagger} \text{ 개념신뢰도} = \frac{(\sum \text{표준적재치})^2}{[(\sum \text{표준적재치})^2 + \text{측정변수의 오차합}]} = .70\text{이상}$$

$${}^{\ddagger} \text{ 분산추출지수} = \frac{(\sum \text{표준적재치})^2}{[(\sum \text{표준적재치})^2 + \text{측정변수의 오차합}]} = .50\text{이상}$$

본 연구에서 개념신뢰도는 전문적 특성, 의사소통적 특성, 업무적 특성, 조직적 특성의 4 요인 모두에서 기준치인 .70이상으로 계산되었으며, 분산추출지수 역시 4 요인 모두에서 .50이상으로 임계치 이상을 보여줌으로써, 신뢰성, 즉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과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판별타당성은 요인간의 상관행렬과 분산추출지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가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 $r^2$ )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에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는데, 본 연구결과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 사이의 결정계수 보다 분산추출지수가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9> 측정방정식 모형의 수렴타당성 평가 결과

구성요인	문항	표준적재치	표준오차	t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전문적 특성	V17	.76	.43	18.19		
	V16	.73	.47	17.73		
	V18	.77	.40	18.76		
	V25	.83	.37	20.93		
	V19	.79	.47	19.28		
	V15	.75	.54	17.83	.939	.562
	V21	.77	.41	18.67		
	V26	.77	.40	18.80		
	V23	.81	.35	20.03		
	V22	.80	.37	19.60		
의사소통적 특성	V14	.68	.54	15.58		
	V20	.61	.63	13.72		
	V9	.87	.24	22.46		
	V7	.89	.20	23.32		
	V8	.87	.25	22.21	.921	.700
	V10	.83	.31	20.69		
	V11	.71	.5	16.42		
	V4	.71	.48	16.02		
	V5	.78	.38	18.62		
	V3	.78	.39	18.48	.856	.500
업무적 특성	V1	.63	.59	13.89		
	V2	.71	.49	15.99		
	V6	.59	.64	12.23		
	V12	.62	.62	13.37		
	V13	.71	.50	15.79	.750	.502
	V24	.79	.38	18.37		

<표 10> 요인 간 상관행렬과 분산추출지수

	전문적 특성	의사소통적 특성	업무적 특성	조직적 특성
전문적 특성	.562 <sup>†</sup>			
의사소통적 특성	.530	.700 <sup>†</sup>		
업무적 특성	.599	.514	.500 <sup>†</sup>	
조직적 특성	.429	.333	.346	.502 <sup>†</sup>
평균	3.98	4.07	3.86	3.81
표준편차	0.64	0.72	0.61	0.69

<sup>†</sup> 각 요인별 분산추출지수

## D.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의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각 하부요인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전체 및 요인별 신뢰도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 측정도구 전체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6 이었고, 제1요인 전문적 특성은 .94, 제2요인 의사소통적 특성은 .92, 제3요인 업무적 특성은 .85, 그리고 제4요인 조직적 특성은 .76 이었다. 따라서 도구 전체와 모든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이 .70이상을 나타내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표 11> 측정도구 전체 및 요인별 신뢰도

요인명	문항	문항수	Cronbach's $\alpha$
전문적 특성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5, 26,	12	.94
의사소통적 특성	7, 8, 9, 10, 11	5	.92
업무적 특성	1, 2, 3, 4, 5, 6	6	.85
조직적 특성	12, 13, 24	3	.76
전체		26	.96

## V. 논의

최근 급변하는 사회와 경쟁체제 안에서 현대인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문적이고 우수한 정신간호사의 양성과 배출이 요구되고 있다.

간호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므로 바람직한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의 신념과 가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신간호학의 전문적인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김형자, 김현옥, 2001; 최형욱, 정면숙, 2007).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정신간호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시도 되지 않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신뢰성있고, 타당한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를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전공 관련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간호학 전공 선택의 동기는 ‘주위의 권유’이라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고 ‘적성·흥미’ 35.2%, ‘입시성적에 맞추어’ 19.5% 순이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간호학 전공 선택 동기는 ‘취업용이’이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고, ‘직업적 안정성’ 27%, ‘사회에 기여, 봉사’ 11.3%, ‘사회적으로 인정’ 7.0%, ‘해외진출’ 2.1%순이었다. 간호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특성은 안정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양영숙(2003)의 연구결과에서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가 가장 높은 순위였으며, 그 다음이 ‘주위의 권유’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공 선택 동기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졸업 후 취업의 어려움과 같은 국내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전공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에 의해 선택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간호사는 환자치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005년에 실시된 대한 간호협회의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3.0%가 간호사 이미지가 병원 이미지를 좌우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이러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변화는 간호사

를 유망 전문직으로 주목받게 하였다.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2003)의 조사에서 5년 후 일자리 전망을 학과별로 분석한 결과, 간호 분야가 2순위로 나타났으며, 한국교육방송(EBS)의 ‘성공예감 직업속으로’ 프로그램에서도 간호사를 집중 조명해 줌으로서 간호사의 진출 분야가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고 일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대한간협신보, 2004).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의해 간호학을 선택하는 동기가 ‘주변의 권유’나 ‘취업용이’와 같은 내용으로 반영 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동안 자신이 선택한 학문에 대한 만족도 역시 87.80%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11.9%의 학생만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여, 간호학문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신간호학 수업이수와 실습경험에 대해서는 ‘정신간호학 수업 무’ 37.8%, ‘정신간호학 수업 유, 실습 유’ 35.2%, ‘정신간호학 수업 유, 실습 무’ 27%로 나타났으며, 정신과 간호사의 역할 인식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 51.4%, ‘잘 알고 있다’ 48.4%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정신간호학 수업이나 실습과 같은 전문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신간호사이미지 이외에도 대중매체와 같은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매체는 ‘책’ 40.8%, ‘TV’ 28.9%, ‘영화’ 15.5%, ‘인터넷’ 13.8%순으로 일반적으로 책과 함께 TV, 영화,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형성은 자신이나 가족의 입원 등으로 간호사와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지만(강혜영, 고미혜, 양진주, 김선미, 2003; 김형자, 김현옥, 2001; 서은희, 2005), 간호사와의 개인적인 접촉이 많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형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속에서 다루어지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간호사로서 적합한 자질을 가진 우수한 인력들이 정신간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외국에서는 인터넷에 나타나는 간호사의 이미지 조사(Kalisch, Begency, & Neumann, 2007)를 통하여 향후 홍보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 분야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왜곡되어 있는 정신간호 분야를 홍보하는데 있

어서, 인터넷 활용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정신간호사 이미지 도구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들 중 간호사 이미지와 정신간호사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5개의 하위요인(업무적 특성; activism, 의사소통적 특성; communicative competence, 개인적 특성; personalism, 전문적 특성; professionalism, 조직적 특성; coordination competence)으로 구성된 총 31문항의 예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예비 측정도구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학생 대상 사전 연구를 통하여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최종적으로 5문항이 제외된 총 26문항으로 확정되었다. 제외된 5개의 문항을 살펴보면, 간호사 개인적 특성 요인들로 전통적인 간호사 이미지와 매우 흡사한 문항들이었다. 전통적인 간호사에 대한 고정관념은 ‘백의 천사’, ‘희생과 봉사’, ‘여성의 직업’ 등이었으나(임미립, 1996; Hallam, 1997; Kalisch & Kalisch, 1987; Lusk, 2000), 1990년대 대중매체에서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는 친절, 온화 등의 여성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로부터 탈피하여, 점차 간호직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표출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서은희, 2005; 정혜선, 유양숙, 2010; 최혜숙, 2005; 최혜숙, 김분한, 2004).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역시 희생과 봉사, 사명감, 밝고 따뜻한 간호사와 같은 개인의 특성보다는 전문적 특성이 더 강조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수집한 자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6개 항목, 4요인으로 구성된 최종도구로 확정되었으며, 누적변량은 65.8%로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요인별 독립성 검증을 위한 4 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도  $r=.3$ ~ $.59$ 의 범위로 나타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극단적으로 유사하거나 중복성의 위험이 없고 요인간의 독립성도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인추출 결과 추출된 4 요인에 대한 하부요인의 명명은 문항의 내용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제 1요인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간호업무를 조직 한다’, ‘정신간호사로써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다’, ‘대상자와 전문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 한다’,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정신간호사 조직에서 활동 한다’,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의료진과 협력한다’,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의 12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첫 번째 요인에는 정신간호사의 전문직으로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문적 특성(professionalism)’으로 명명하였다. 역사적으로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여성들이 하는 일’, ‘미혼’, ‘수동적’, ‘천사’, ‘판대’, ‘순응’, ‘유순’ 등의 여성적인 고정관념의 모습이었다(최형숙, 정면숙, 2007; Hallam, 1997; Kalisch & Kalisch, 1987; Lusk, 2000). 그러나 최근의 이미지는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며(Hallam, 1997),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모습(Lusk, 200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인터넷에 나타나는 간호사의 이미지로는 약 70%가 지적이고 교육받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50%는 ‘자율성’이 있고, 전통적인 ‘온화’, ‘친절’, ‘동정’등의 이미지는 47%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Kalisch, Begency, & Neumann, 2007). 이것은 간호사의 이미지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12문항들도 모두 이러한 정신간호사의 전문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제 2요인에는 ‘환자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환자와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가족과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가족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의료팀과 정보를 교환 한다’의 5문항이 포함되었고, 이 두 번째 요인은 타인과의 정보제공 및 교육, 정보교환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적 특성(communication competence)’으로 명명하였다. 최근 전문 간호사의 등장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가적 간호실무, 교육 및 상담, 연구, 지도와 관리, 자문 및 협동 등으로 확대되었다(ANA, 1996). 그러나 간호전문직의 역할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담이나 교육자’의 역할이 대중매체에서는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다(김형자, 김현옥, 2001; 박선아, 2008; 양일심, 1998; 최형숙, 정면숙, 2007). 정신간호사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상담과 교육이며, 나아가 다른 전문 간호사와 비교하여, 독특한 특성의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상담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사소통적 특성’은 정신간호사 역할에 있어서 중요하며, 간호교육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다.

제 3요인에는 ‘증상 및 약물관리를 한다’, ‘근거중심의 간호기록을 작성한다’, ‘각종검사(심리검사 포함)를 이해하고 적용 한다’, ‘환자의 개인위생 및 안전관리를 한다’,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독자적인 간호를 수행한다’, ‘임상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잘 다룬다’의 6문항이 포함되었고, 이 세 번째 요인은 정신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업무적 특성(activism)’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일반적으로 간호사들이 행하는 업무적 활동들로서 Siebens 등(2006)과 Kristel 등(2009)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인지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제 3요인 중 ‘임상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잘 다룬다’는 문항은 일반적으로 정신과 간호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는 정신간호 분야가 다른 전문 간호 분야 중에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가장 진보되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Bostrom(2003)의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정신간호 분야는 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해왔으며, 지난 30년 동안 정신약물의 선구적인 개발을 통해 어느 영역 보다 과학기술적인 면에서 성장, 발전해왔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간호학생들이 인지하는 정신간호사 이미지에는 다른 분야의 전문 간호사들처럼 정신간호사들도 임상의 기계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간호업무를 보다 독자적이고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요인에는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한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 ‘보건의료요원들과 팀으로써 일한다’의 3 문항이 포함되었고, 이 네 번째 요인은 타 부서와의 조화와 협력의 의미를 포함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조직적 특성(coordination competence)’으로 명명하였다. 전문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자문 및 협력이다. 특히 정신간호사는 이러한 역할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과 조직을 개발, 통합, 연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는 역사적으로 볼 때, 196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도 정신보건법(1996)이 제정되고 2010년 개정되기까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강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신간호사의 역할에 지역사회 주민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사회기관과의 연계 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도복ぬ, 2007), 나아가 정신보건 영역의 전문가들과 사례관리 팀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PSYNIS의 요인구조를 잘 드러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 통계량은 1052.30( $p<.001$ ), RMSEA

는 .05, GFI는 .90, AGFI는 .86, NFI는 .97, 그리고 CFI는 .98로 모든 적합지수의 값이 임계치를 초과하므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가 전문적 특성, 의사소통적 특성, 업무적 특성, 조직적 특성의 4 요인 모두에서 기준치인 .70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분산추출지수 역시 4 요인 모두에서 .50이상으로 임계치 이상을 보여줌으로써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 사이의 결정계수 보다 분산추출지수가 모두 크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PSYNIS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 으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각 하부요인들의 신뢰도는 제1요인 전문적 특성은 .94, 제2요인 의사소통적 특성은 .92, 제3요인 업무적 특성은 .85, 그리고 제4요인 조직적 특성은 .76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최종 확정된 정신간호사 이미지도구(PSYNIS)는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한 기준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신간호사 이미지도구(PSYNIS)는 특히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간호사 이미지 파악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실습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3개 전문 간호사 영역별 간호사 이미지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이미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도구의 예비 문항은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5가지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31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예비검사결과 내용타당도와 전문자문가 자문에 의해 부적합한 5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26문항을 선정하였다.

K시와 J도 소재의 3년제 간호대학 2개교와 4년제 간호학과 2개교의 재학생 중 426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총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이들 요인의 총 변량 값은 65.8%였다. 4개의 요인 중 제 1요인은 ‘전문적 특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제 2요인은 ‘의사소통적 특성’으로 총 5개 문항, 제 3요인은 ‘업무적 특성’으로 총 6개 문항, 제 4요인은 ‘조직적 특성’으로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1052.30(p<.001)$ , RMSEA .05, GFI는 .90, AGFI는 .86, NFI는 .97, 그리고 CFI는 .98로 나타났다.
3. 본 도구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96으로 나타났고 하부 요인별 신뢰도는 제 1요인이 .94, 제 2요인이 .92, 제 3요인이 .85, 제 4요인이 .76이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측정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므로 교육, 간호 현장이나 연구 분야에서 정신간호사의 이미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간호연구, 실무, 교육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추후 연구에서는 정신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연구 및 보다 다양한 예측 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본 연구결과를 일반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계속적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3. 전문적이고 긍정적인 정신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4. 13개 전문 간호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간협신보(2004. 1. 29). 간호사 ‘유망 전문직’으로 주목 받아. <http://www.nursesnews.co.kr>에서 인출.
- 강영실(2001). 입원경험 전, 후의 간호사 이미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1), 22-37.
- 강현숙, 김원옥(2002). 첫 임상실습이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9(3), 379-387.
- 강혜영, 고미혜, 양진주, 김선미(2003).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대한간호학회지*, 33(6), 792-801.
- 김계수(2009). *잠재성장모델링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AMOS LISREL)*. 서울 : 한나래아카데미, .
- 김민정(2000). 일 지역 일반인과 대학생의 간호이미지와 간호사 자질에 관한 조사. *경북간호과학지*, 4(2), 51-63.
- 김형자, 김현옥(2001).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7(1), 97-110.
- 대한간호(2005). KNA포커스02/‘간호사 이미지 설문조사’. 대한간호, 3/4월호.
- 도복듬 외 17명(2007).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학. 서울 : 정담미디어.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 박미영, 김순이(2000). 전문대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체험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23-35.
- 박미화, 양진주 (2002).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8(1), 107-121.
- 박선아(2008).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 병원원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2003). 정신간호사의 분노표현양식과 소진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3), 235-244.
- 보건복지가족백서(2007). [www.mw.go.kr](http://www.mw.go.kr)
- 서은희(2005).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광주.

- 송인자(1993). 간호이미지에 관한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및 일반인의 견해 비교분석, *대한간호*, 32(2), 43-50.
- 양수, 김필교(2000). 정신간호사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식에 따른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자원연계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9(4), 587-598.
- 양영숙(200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 양일심(1998). 간호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4(2), 289-306.
- 양진주(2003). 첫 임상실습 전, 후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9(1), 64-72.
- 오덕자, 최철자, 권보은, 박연환(2005).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가 전문직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1), 64-72.
- 이경희, 박청자(1994). 대구시내 정신과 간호사의 이미지와 역학학대의지에 대한 조사연구. *정신간호학회지*, 3(2), 28-34.
- 이돈순(1995). 일반인이 인지한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순희, 김정아(2006). 간호과 학생들과 비간호과 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와 결정요인. *간호행정학회지*, 12(1), 52-62.
- 이영란 (2008). 간호조무사가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주.
- 이정숙 외 24명(2008). 정신건강간호학. 서울 : 현문사.
- 임미립(1996).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간호 이미지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정신보건법(2010). likms. assembly. go .kr / law.
- 정혜선, 유양숙(2010). 일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4(1), 29-38.
- 최정, 하나선(2009).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전문직 사회화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5(1), 54-63.
- 최형옥, 정면숙(2007). 제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간호 이

- 미지. *대한간호학회지*, 37(3), 391-400.
- 최혜숙, 김분한(2004). Q 방법론 및 이론 : 전문직 간호사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연구. *주관성 연구*, 9, 109-133.
- 최혜숙(2005). Q방법론 및 이론 : 임상실습교육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전문직 간호사이미지. *주관성 연구*, 10, 69-106.
- 한국산업인력공단(2003). 일자리 기초정보 이곳에서 찾으세요. *산업인력소식*, 144, 3.
- 허금희, 이병숙(1999). 대구지역 초, 중, 고등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조사. *보건행정학회지*, 9(2), 157-173.
- ANA(1996). *Scope and standard of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ing*. Washington D C: American Nurses Publishing.
- Andrew, A. A.(1981). *Image of nursing; Public profession and implication*. Current Issues in Nursing, Boston: Blackwell Scientific Pub., 587-589.
- Beatrice, J. K., Suzanne, B., Sue N.(2007). The image of the nurse on the internet. *Nursing Outlook*, 55(4), 182-188.
- Brown, B., Crawford, P., Darongkamas, J.(2000). Blurred roles and permeable boundaries : the experience of interdisciplinary team working for community mental health staff.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8(6), 425 - 435.
- Bostrom, A. C.(2003). Technologic advances in psychiatric nursing.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38, 1-8.
- Burnard, P., & Fothergill, A.(2000).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in Wales: Self reported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7, 523 - 528.
- Corrigan, P. W.(2004). Target-specific stigma change : A strategy for Impacting mental illnes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8, 113-121.
- Donley, R.(1985). *Strategies for change nursing's image*. In J. C. McClosky & H. K. Grace(Ed.), *Current Issues in Nursing*(2nd ed.). Boston :

Blackwell.

- Durkin, A.(2002). Psychiatric nursing recruitment.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40(8), 32-36.
- Edwards, D., Burnard, P., Coyle, D., Fothergill, A., & Hannigan, B.(2000). Stress and burnout in community health nurs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7, 7- 14.
- Hallam, J.(1997). From angel to handmaidens: Changing construction of nursing's public image in post-war Britain. *Nursing Inquiry*, 5, 32-42.
- Halter, M. J.(2002). Stigma in psychiatric nursing.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38, 23 - 29.
- Halter, M. J.(2008). Professional identity in community mental health nursing: A thematic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 1055 - 1063.
- Hannigan, B., Edwards, D., Coyle, D., Fothergill, A., & Burnard, P.(2000). Burnout in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Findings from the All-Wales Stress Study. *Journal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7, 127 - 134.
- Happel, B.(2002). The role of nursing education in the perpetuation of inequality. *Nurse Education Today*, 22, 632 - 640.
- Happell, B., Martin, T., & Pinikahana, J.(2003).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A comparative study of psychiatric nurses from forensics and a mainstream mental health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12, 39 - 47.
- Hughes, K.(2000). Quality & Marking Issues in Nursing Education. *Br Nurs*, 9(12), 763-768.
- Kalisch, B., Begency, S. & Neumann, S.(2007). The image of the nurse on the internet. *Nursing Outlook*, 35(4), 182-188.
- Kalisch, P. & Kalisch, B.(1987). Nurses on prime time television. *American Journal of Nursing*, 82, 264-270.

- Kalisch, P. A., & Kalisch, B. J.(2005). Perspectives on Improving Nursing's Public Image.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6(1), 11-17.
- Kenny, A., McConnachie, S., Petrie, E., & Farrell, G.(2009). Preparing nurses with enhanced mental health Knowledge and skill : a major in mental health. *Collegian*, 16(3), 139-146.
- Kippman, D. T., & K. S. Ponton.(1989). Nursing's Image on the University Campus. *Nursing Outlook*, 37(1), 24-27.
- Kotler, P., & Clarke, R. N.(1987). *Marketing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Kristel, De V., Koen, M., Renild, W., Kristien, S., Louis, P., Roseline, D., Ludo, G., Frieda, O., Ingrid V. D., Bernadette, D., de C., & representing the Belimage Home care Group(2009). The professional self-image of registered home nurses in Flanders (Belgium): a cross-sectional questionnaire survey. *Applied Nursing Research, In Press, Corrected Proof, Available online*.
- Lusk(2000). Pretty and powerless: Nurses in advertisements, 1930-1950.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3, 229-236.
- Margaret J. Halter.(2008).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Psychiatric Nurses : Stigma by Associatio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2(1) 20-26.
- Martin, T. & Happell, B.(2001).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views of mental health nursing in the forensic environment.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10(2), 116.
- McCabe, S.(2006) Best of Times and Worst of Times: The Future of Psychiatric Nursing.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0(1), 1-2.
- Mendez, D. & Louis, M.(1991). College student's image of nursing as a career choi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7), 311-319.
- Miyuki, T., Phillip, M., & Elizabeth, M.(2006). Impact of the perceived public image of nursing on nurses' work behaviou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3), 333-343.

- Milsen, K., De Busser, T., Kavaert, A., Abraham, I. & Dierckx de C. B. (2010). The evolving professional nursing self-image of students in baccalaureate programs ; A cross-sec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7(6), 688-698.
- Pedhazur, E. J., & Schmelkin, L. P.(1991). *Measurement, design, and analysis: An integrated approach*.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iebens, K., Casterle, B. D., Abraham, I., Dierckx, K. Braes, T. Darras, E., Dubois, Y. & Milisen, K.(2006). The professional self-image of nurses in Belgian hospitals: A cross-sectional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3(1), 71-82.
- Strasen, L. L.(1990). *The image of professional nursing strategies for action*.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 Sureyya K.(2003). Change i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nursing during their education: the role of the introduction to Nursing course in this change. *Nurse Education Today*, 24, 128-135.
- Susanne, M.(2007). 'Angels in nursing': images of nursing sisters in a Lutheran context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Nursing Inquiry*, 14(4), 289-298.
- Tsang, A. S. M.(2005). Being a future nurse: Our professional image. *Hong Kong Nursing Journal*, 41(3), 15-16.

<부록1> 도구의 타당도 조사 설문지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간호학생의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로 향후 간호 교육과정과 실습 교육에서 바람직한  
정신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모든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전공  
연구자 조영희 올림

다음 문항은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정신간호사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에 “V”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적절 하지 않다	적절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절 하다	매우 적절 하다
<b>● 업무적/기술적 측면 (기술적인 측면)</b>					
1. 환자의 개인위생 및 안전관리를 한다.					
2.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독자적인 간호를 수행한다.					
3. 각종 검사(심리검사 포함)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4. 증상 및 약물관리를 한다.					
5. 근거중심의 간호기록을 작성한다.					
6. 임상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잘 다룬다.					
<b>● 사회적/의사소통 측면</b>					
1. 환자와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2. 가족과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3. 환자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4. 가족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5. 보건의료팀과 정보를 교환한다.					
6.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한다.					
7.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					
<b>● 개인적인 측면</b>					
1. 희생과 통사정신을 가지고 있다.					
2.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있다.					
3.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4. 밝고 따뜻하다.					
5. 창의적이다.					
6.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b>● 전문적인 측면</b>					
1.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2.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3. 정신간호사로서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다.					
4. 대상자와 전문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5.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					
6.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7. 실무에 과학적 방법을 활용한다.					

● 조직적인 측면					
1. 다른 의료진과 협력한다.					
2. 관리자로써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3. 보건의료요원들과 팀으로써 일한다.					
4.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간호업무를 조직한다.					
5. 정신간호사조직에서 활동한다.					

<부록2>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간호학생의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로 향후 간호 교육과정과 실습 교육에서 바람직한  
정신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모든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전공  
연구자 조영희 올림

다음 내용을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쓰거나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 입니까?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        )      ② 여자 (        )

3. 귀하는 몇 학년 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귀하의 교육제도는 어디에 속합니까?

① 3년제      ② 4년제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천주교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기타

6. 귀하의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상      ② 중      ③ 하

7. 귀하의 간호학과 입학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교 졸업 후 바로입학      ② 재수 또는 삼수  
③ 간호과 졸업 후 편입학      ④ 비 간호계열 학과 졸업 후 편입학

8. 귀하께서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은?

① 내향적      ② 외향적

9. 귀하의 직계가족 중에 간호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0 가족이나 귀하 본인이 병원에 입원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2. 귀하는 다음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정신간호학 수업을 아직 받지 않았다.  
② 정신간호학은 배웠으나 정신과 실습은 아직 하지 않았다.  
③ 정신간호학도 배웠고 정신과 실습경험도 있다.

13. 귀하의 간호학 전공 선택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측면)

- ① 적성, 흥미 때문에                  ② 입시성적에 맞추어  
③ 주위의 권유에 의해

14. 귀하의 간호학 전공 선택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측면)

- ① 사회에 기여, 봉사 할 수 있다.                  ② 해외진출이 쉽다  
③ 직업적인 안정성이 있다.                  ④ 졸업 후 취업이 잘된다.  
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다.

15. 귀하의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16. 귀하는 졸업 후 기회가 된다면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십니까?

- ① 원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원하지 않는다

17. 귀하는 정신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모른다

18. 귀하는 본인이 정신과 간호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합하다                  ② 적합하지 않다

19. 귀하는 정신과 간호사를 전문가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0. 귀하께서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매체는 어느 것입니까?

- ① T.V                  ② 책                  ③ 인터넷                  ④ 영화

(이하는 정신과 실습경험이 있으신 분만 체크해 주십시오)

21. 귀하께서 정신과 실습을 경험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종합병원 정신과                  ② 정신병원                  ③ 지역정신보건센터  
④ 종합병원 정신과 & 지역보건센터                  ⑤ 정신병원 & 지역보건센터

22. 귀하는 정신과 실습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② 불만족

다음 문항은 귀하의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정신간호사에 대한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V1. 환자의 개인위생 및 안전관리를 한다.					
V2.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독자적인 간호를 수행한다.					
V3. 각종 검사(심리검사 포함)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V4. 중상 및 약물관리를 한다.					
V5. 근거중심의 간호기록을 작성한다.					
V6. 임상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잘 다룬다.					
V7. 환자와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V8. 가족과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V9. 환자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V10. 가족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V11 보건의료팀과 정보를 교환한다.					
V12.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한다.					
V13.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					
V14.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V15.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V16.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V17.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V18. 정신간호사로서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다.					
V19. 대상자와 전문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V20.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					
V21.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V22. 다른 의료진과 협력한다.					
V23. 관리자로써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V24. 보건의료요원들과 팀으로써 일한다.					
V25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간호업무를 조직한다.					
V26. 정신간호사조직에서 활동한다.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간 호 학 과	학 번	20087484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조 영 희	한문 : 趙 英 希	영문: Cho Young Hee		
주 소	광주 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모아아파트 101-407				
연락처	E-MAIL : luve8811 @ 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개발 영문 : Development of a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 : Focused on Nursing Student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 다 음 -

-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반대(  )

2010년 8월

저작자 : 조 영 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 감사의 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때가 가장 빠른 때다’. 주위에서 들어볼 수 있는 흔한 말이 저에게는 새삼스레 절실히 마음에 와 닿는 요즈음입니다. 대학원에 발을 들여놓은 날이 엊그제처럼 선명한데, 벌써 논문을 완성하며 감사의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끝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로 부족하기만 한 이 제자에게 길을 안내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권영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격려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공병혜 교수님, 강희영 교수님, 정영 교수님, 김인숙 교수님, 오현이 교수님, 김진선 교수님, 황선영 교수님, 김계하 교수님, 박정환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배려로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당신으로 인해 제 삶이 너무나 행복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은 공부를 시작하기에 망설이는 딸에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고 늘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으로 격려해주시는 부모님, 부족한 며느리를 늘 딸처럼 아껴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시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바빠지면서 같이 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늘 공부하는 엄마를 배려해주고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는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사랑하는 세자, 세영에게도 글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사랑을 전합니다.

공부를 시작할 용기를 주고 늘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준 박은희,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해주신 대학원 선배님, 후배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 저를 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삶을 항상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조영희 드림